

# 한나라 '이상득 퇴진론' 가열

## 정두언 "대채신 끝을 보겠다"...소장과 중심 공론화 움직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과 정두언 의원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소장그룹간 인적쇄신을 둘러싼 갈등이 이 전 부의장의 '진퇴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상득 전 부의장을 겨냥해 '권력 사유화' 및 '인사실책 책임자의 거취 결단'을 주장한 정 의원이 최근의 인적쇄신 움직임에 다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고, 소장파들이 가세할 태세이다.

동시에 '친박 일괄 복당'으로 계파간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부의장을 둘러싼 문제는 당내 주류 내부의 갈등과 분란으로 이어질 소지도 안고 있다.

정두언 의원은 가까운 의원들과 접

촉을 갖고 "나는 대통령에게 무한책임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을 위해 죽으려면 죽을 것"이라며 "하지만 (인적쇄신 문제는) 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친이 소장그룹의 김용태 의원이 12일 전했다.

정 의원은 나아가 "박영준 비서관이 물러난 것으로 화풀이를 했으니 끝났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며 "이상득 전 부의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사유화'의 한 당사자로 꼽힌 박영준 비서관이 사퇴하고, 청와대와 내각의 일괄 사의표명이 이어짐에 따라 인적쇄신을 둘러싼 여권내 갈등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했으나 다시 휘파람처럼 불거진 것이다.

정 의원을 비롯한 친이 소장그룹은 ▲'친이상득 인사'로 분류되는 정중복 전 의원의 청와대 민정수석 기용 ▲'류우의 대통령실장'의 유임 조짐 ▲'박근제 총리 카드'의 선부름 공개 등을 문제삼고 있다.

대규모 '6·10 집회'를 통해 확인된 성난 민심의 요구를 수용해 대대적 인적쇄신의 흐름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전 부의장의 '인사개입'으로 또 다른 인사실책을 예고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용태 의원은 "다른 방법이 없다. 이상득 전 부의장이 깨끗하게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이 전 부의장은 해외 체류라도 해야 할 것"이라며 이 전 부의장의 '책입

론'을 강조했다. 여기에 4선 의원인 남경필 의원과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가세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실장 후보로 거론되는 윤여준 전 의원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부의장은) 오해받기 좋은 위치"라며 "이 전 부의장 자신이 (오해를 푸는 방법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의장측 관계자는 '수목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 나무가 고요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부의장은 '제발 나 좀 걸고 넘어지지 마라'는 얘기를 하더라도"라고 소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과 그 이후 '행사'에 참석해 행사 전 대기실에서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손학규 "국회 등원 심각히 고민중"

## 동교동 방문 DJ 조언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2일 비공개리에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찾았다.

김 전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단에게 "국회에 들어가서 싸우라"며 등원을 조언한 바 있어 손 대표의 이날 동교동 방문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등원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동교동 사저에서 10시30분부터 50분 가량 김 전 대통령을 면담, 6·15 8주년 축하 난을 전달하고 현 시국 상황과 국회 등원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손 대표는 면담이 끝난 뒤 "(등원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정치가 실종되고 민주당이 추방집회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정말로 정치를 회복하

고 야당 역할을 회복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등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현 시점에서 야당 대표로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큰 방향에 대해서는 되도록 빨리 정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원의 전제 조건에 대해 "여당과의 협상 문제인만큼 기본적으로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어쨌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국민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자세가 아니라 (제1야당으로서) 적극 책임지는 자세를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위가 어떻게 진행될지 쳐다보지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손 대표는 "국민과 함께 한다는 정신에서 추방집회에 참여했지만 걸거리에 앉아 있으면서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며 "그 자리에 있는 게 제1야당 대표로서,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인지에 대해 고민했다"고 토로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손 대표에게 "국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정치를 복원하고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찾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요구인 재협상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들어가야 한다"며 등원을 거듭 촉구했으며, 손 대표도 이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이번 문제를 국회 안에서 제기했다면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달라졌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경찰 폭력진압 문제와 관련, 국회로 경찰청장을 불러 따졌더라면 문제를 더 제대로 다룰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남북관계 풀려면 6·15선언 계승해야" 6·15 8돌 기념행사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내 정치·학계·시민사회 관계자 등 800여명은 12일 오후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8주년 기념 행사를 갖고 정부에 6·15선언 계승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남북정상이

서명하고, 실천해온 역사적인 문서를 다음 정부가 목살한다면 남북관계에 신뢰를 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또 "대북 식량·비료 지원을 직접, 조간없이, 시급히 추진할 것을 정부 당국에 권고한다"며 "식량과 비료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이고 시급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언문은 아울러

"남북관계 복원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15 선언의 주역인 김 전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상태에 있지만 결국은 화해 협력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본다"며 "그 외에는 대안이 없고 화해 협력하는 것이 남북 쌍방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모두가 제 불찰...모든 책임 지겠다"

## 이건희 前회장 재판 출석 혐의는 전면 부인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에 출석한 이건의 전 삼성그룹 회장은 "모두 제 불찰이고 책임은 제가 다 지겠다"고 말했다지만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그는 모두진술을 통해 "모두 제 불찰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제가 다 지겠다"면서 "저와 법정에 선 사람들의 잘못이 있다면 제 책임 하에 있는 일이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년간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왔고, 지금 와서 보니 주변을 돌아보는데 소홀했음을 깨달았다"면서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

## 정몽구 회장 대법 상고 포기 형 확정

과기환승심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12일 서울고법에서 따르면 3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명령 300시간을 선고받은 정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정 회장은 바리엔 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상고를 포기했고, 검찰 역시 과기 환승심 판결에서 법리적인 문제점을 찾아 내지 못해 상고를 포기했다.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원을 횡령하고 부실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가 참여하도록 해 이들 회사에 21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2006년 기소됐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홍준표,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쇠고기 파동으로 공전하고 있는 18대 국회 개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가축법 "등원부터" "논의부터"

## 한나라-민주 원내대표 회동 입장차만 확인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통합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공식 회담을 갖고 국회 개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의도에 실패한 채 입장 차만 확인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미국산 수입 쇠고기 관련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가 적극 나서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조처를 마련하기로 하는 데는 합의했다"면서 "그 방안으로 한나라당은 '신 등원, 후 논의'를 주장했고, 통합민주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대한 선 동의 및 후 등원'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여야 4당이 13일 국회에서 개최하는 가축법 개정안 공청회 결과를 보고 추후 협상을 재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주 유익한 만남이었다"며 "2~3차례 더 만나면 해법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첫 국회정상화 회담에서 견해 차를 확인함에 따라 미국 조야를 상대로 쇠고기협안 협의 중

인 당·정·청 방미단이 13일 가져올 성과가 국회의 조기 정상화 여부를 가를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미단이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를 이끌어낼 경우 국회의 가축법 개정 논의 없이도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날 여야 회동에서 쇠고기 해법 외에 18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도 논의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www.kyobobook.com

새로운 국가자격증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각반40명

2008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교육 실시 (교육비 100% 지원)

교육과형	차수	교육기간	교육장	교육비
신규 모집반	1반	09:00~18:00(월~금)	신규 교육차관	10,000~22,000(월~금)
신규 모집반	2반	09:00~17:00(월~금)	차수중 반	10,000~21,000
신규 모집반	3반	18:00~19:00(월~금)	차수중 반	14,000~19,000
신규 모집반	4반	18:30~22:30(월~금)	차수중 반	14,000~19,000

교육비 이후 시월없이 1급 국가자격증 교부  
교육보험 기입근로자 국비 지원 혜택 180%~100% 환급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 소지자 혜택 (사용현금 100%)

가축사냥 요양보호사교육원

전화 062)364-1152~3  
062)368-2070

"경찰정무원" 임용시험 2개월 전 합격! 합격자만 10명!

## 7월 1일 경찰 임용시험특강 개강

동부경찰학원

전국 4명	2개월 전도
경찰전문 교수진	합격 완성
전국 최고의	개인 지도교수제
교육시설 및 환경	(성적·수월 관리)

이름당 1명씩 10명 이벤트(상제인내용은 학원생만 해당) 참조

과제 무료출정, 경찰정무원 신입교사 2차 시험대비 무료특강

www.dongbu.ac.kr

### 대한민국 No.1 경찰 호남 최대 경찰전문학원!

## 동부경찰학원

동부경찰서 뒤편 4층 구 도청역